

월드컵과 사람들

안정환 '가장 패션감각 있는 선수'



삼성패션연구소 설문 최고 유니폼은 잉글랜드

'가장 패션감각 있는 선수는 안정환, 베켄, 패션 디자이너가 뽑은 최고의 유니폼은 잉글랜드'

가장 색다른 유니폼으로는 서인도 제도의 트리니다드토바코가 뽑혔다. 이어 잉글랜드의 유니폼과 몸에 붙는 네덜란드 유니폼이 2,3위에 올랐다.

"꼭짓점 댄스로 돈 벌고 싶지 않았죠"



'꼭짓점 댄스' 원조 김수로 "연기로 인정받고 싶어"

민이 사랑해주시니까 저도 즐겁지만 배우로서 인정받고 그로 인해 행복을 느끼야 하는데, 엉뚱한 쪽으로 관심을 끈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

김수호가 꼭짓점 댄스를 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그의 춤추는 모습에서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김수로는 "작은 인연이라도 배우 김수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영화의 홍보도 하지 않겠다는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 김수로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수로는 "작은 인연이라도 배우 김수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사실 그는 2월 영화 '흡혈형사 나도열'의 개봉을 앞두고 전국 관객 300만 명을 모으던 월드컵 때 시청 앞에서 꼭짓점 댄스를 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기운(68·앞줄 가운데 키 작은 사람)씨가 EBS가 제정한 '2006 효도우미상'의 '으뜸 효행상'을 수상한 뒤 마을 주민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90세 노모 30년간 모셔... '으뜸 효행상'

칠순 앞두고 효행상 받은 무안 안기운씨

칠순을 앞둔 노인인 90세 노모를 30년간 모셔 EBS가 제정한 '2006 효도우미상'의 '으뜸 효행상'에 선정됐다.

안기운(68·무안군 해제면)씨는 지난 8일 EBS 방송국에서 마을 주민들의 축하 속에 표창장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안씨는 왜소증이라는 신체적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홀로 계신 노모(박갑나·90)를 30여년간 극진히 모셔온 공이 인정돼 이번엔 전국에서 2명에게 준 '으뜸 효행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선천적으로 왜소하게 태어난 안씨는 12살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마저 재가하자 남의 집 머슴살이를 연명하던 중 새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병든 몸을 이끌고 자신에게 돌아온 어머니를 30여년간 극진히 병수발을 하고 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안씨는 자신도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머니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매소변을 해결해 드리는 등 비극이 두문 효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어! 한국이 왜 전반에 파업 했었지"

한국전 관련 베켄바워 농담



프랑스 베켄바워 독일월드컵축구조직위원장이 아드보카트호의 역전 승부에 대해 재미있는 농담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13일 밤(한국시간) 한국-토고전이 끝난 뒤 "베켄바워 조직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경기를 보는 데 전반전 상황이 좋지 않자 침묵이 잠시 흘렀다"며 "후반에 역전을 하고 나서 재미있는 농담을 던져 한바탕 웃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베켄바워 조직위원장은 역전골이 터진 뒤 "왜 한국팀이 전반에 파업을 했었지. 후반에 들어서야 뛰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축구협회장은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아 전반에 말을 아끼던 베켄바워 위원장이 후반 들어 역전에 성공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려고 농담을 던진 것 같다"고 풀이했다.

"히딩크는 아직도 한국인들의 영웅"

호주 언론 보도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호주에 첫 승리의 감격을 안겨준 거스 히딩크 감독은 아직도 한국인들의 영웅이라고 호주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날 카를로스 몬테이로 기자의 기명기사에서, "호주도 월드컵에서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일본을 격파한 히딩크 감독이 카이저슬라우테른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 한국 취재진들에 둘러싸였다고 소개했다.

몬테이로 기자는 히딩크 감독 자신도 한국 기자들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은 뒤 "한국의 명예시인으로서 일본을 물리치게 돼 무척 기쁘다"는 소감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히딩크 감독이, 호주가 거둔 승리를 한국이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거둔 승리와 비교했다면서 한국에도 그것이 월드컵에서 거둔 첫 승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럭비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많은 국제경기에서 서로 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면서 히딩크는 한국에서 아직도 영웅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같은 사실은 히딩크가 아직도 한국에서 광고 선전 등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호주와 일본전에 한국의 많은 기자와 팬들이 몰려든 데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히딩크는 3개 대륙 팀에 승리 안긴 명장"

브라질 언론 소개

거스 히딩크 호주 대표팀 감독이 사상 최초로 3개 대륙 팀의 월드컵 승리를 이끌어낸 주인공이 됐다.

브라질 언론은 "히딩크는 월드컵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면서 "1998년에 네덜란드, 2002년에 한국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끈데 이어 월드컵에 첫 출전한 호주의 첫승을 만들어

낸 명장"이라고 소개했다.

브라질 언론은 특히 전날 열린 일본의 경기에서 3대 1로 대역전극을 펼친 것을 놓고 "히딩크 감독의 뛰어난 전략과 용병술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브라질 언론은 이와 함께 히딩크 감독이 독일월드컵이 끝난 뒤 러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라과이 아쿠냐, 스웨덴 여기자에 추파

양국 결전 앞두고 신경전



파라과이의 미드필더 로베르토 아쿠냐가 스웨덴 여기자에게 추파를 던졌던 '전력'이 기사화돼 오는 16일(이하 한국시간) 맞붙는 두 나라 사이에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dpa통신은 14일 "스웨덴 한 일간지가 12일 자 신문에 '아쿠냐가 스웨덴 사진 기자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했다'는 기사를 게재해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쿠냐가 코펜하겐에서 덴마크와 경기를 치른 지난 5월28일 자정쯤이 사진 기자의 방으로 전화를 걸어 '만나서 더 많이 알고 싶다'며 접근해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스웨덴 언론에 보도되자 발끈한 파라과이 측은 연습장에 스웨덴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dpa가 덧붙였다.

파라과이와 스웨덴은 16일 새벽 4시 베를린에서 B조 2차전을 치른다.

베컴, 미스 월드가 뽑은 '월드컵 얼짱'

세계 최고의 미인이 뽑은 2006 독일 월드컵 최고의 '얼짱'은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의 간판 데이비드 베컴(31·레알마드리드)이었다.

지난 해 미스월드로 선발된 아이슬란드 출신의 우르비르 비르나 빌얌스도티르(22)는 이번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 중 '미스터 월드'를 묻는 질문에 베컴을 지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빌얌스도티르는 "그는 몸매와 외모, 헤어스타일 등

모든 걸 가지고 있다. 메트로섹슈얼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꿈꾸는 그는 그러나 "그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나는 유명 인사와 데이트하고 싶지는 않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062-223-919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제원 법률사무소 토 오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사무실 223-2100

▲비밀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 15회 동창회(회장 박 의재) 월례회=15일(목) 오후 6시30분 프라도호텔, 654-9889

▲수창초교 50회 동창회(회장 유창식)=15일(목) 오후 7시 금강산 한우촌.

▲효동초등 32회 정기 월례회=16일(금) 오후 8시 화나 콩나물 삼겹살 523-2550

▲함평 월야북초교 21회 동창회=17일(토) 오후 7시 마포숏골프비 011-9618-8669

▲복성중 제 17회 동창회(회장 이광) 월례회=17일(토) 오후 7시 일송정.525-9977

▲남평초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17일(토) 오전 10시 남평초교 영평관

▲제 40차 살레시오여중고 총동

문회(회장 조옥자) 및 제 13회(회장 최갑순) 모교 방문의 날=18일(일) 오전 10시30분 모교 대강당. 016-685-2344, 017-238-9021

▲정읍 호남동문회=22일(목) 오후 7시30분 용봉동 큰바다해물탕. 011-9609-6780

중친회

▲창녕조씨 광주·전남 청년회=15일(목) 오후 7시 광명해물가든식당. 010-6688-8983

향우회

▲재광 해남군 향우회 제 27차 정기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15일(목) 오후 7시 꿈의공전 웨딩홀 연회장. 233-3909

▲재광 보성읍 향우회(회장 박철현) 정기총회=19일(월) 오후 7시

미연회타운 별관. 227-4743

모임

▲광주·전남 언론인회 월례회=15일(목) 오후 6시 화랑궁회관 별실. 223-7340

모집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수상인명구조원 일반·강사과정 교육생 모집=만 18세 이상 기본연성 200m 가능자. 접수는 26일 오전 10시까지 광주·전남 홈페이지(Http://gwangju.redcross.or.kr). 문의 521-0545.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

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동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도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홍패션·커피·퀵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족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상층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

와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431-0035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525-1391

▲인우회 회원모집=광주지역 전·외국 전역자들의 모임, 총무 011-606-7789

▲불림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 농지임대 신청자 모집=도시 거주자 및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임대 수탁 관리 http://www.fbo.or.kr061-320-5222

▲한국웃음협회 회원모집=건강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푸른학당=오전반(검정고시반·초등과정), 오후반(초등반·기초영어반), 야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육대 맞은편 2층 529-1188

부음

▲마연녀씨 별세 정성고·효고·선회회 모친상 김상철씨 빙모상=발인 16일(금) 그간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메세나협 회장에 이견산업 박영주씨 재선임



고(故) 박성용 회장의 잔여임기

를 수행하던 이견산업 박영주(64) 회장을 재선임했다.

3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박 회장은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75년 광명목재 대표이사를 거쳐 1978년 이견산업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표: (062) 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남묘특별분양 (062) 521-1100